



83년 10월에 東京서 창립된

在日 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金鉉佑씨... 오는 8월 학술대회참가

日本 편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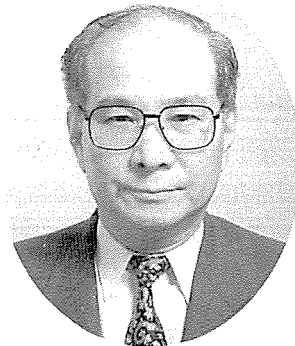
설립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在日科協 =KSEAJ·회장 金鉉佑)가 지난 1983년 10월22일 일본 동경에서 창립된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0년전 모국 과총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李康模씨가 일본에 와서 「재외과학」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 설명했던 기억이 새롭다.

재외과학은 10개성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직체계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연륜이 거듭됨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시련을 거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된다.

재외과학은 다른 지역의 해외과학과는 달리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과학 결성시부터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던 것이다. 재일한국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단계가 중심이 된 재외과학은 모국과의 과학기술교류활동이 모국과의 획정인 유대를 긴밀히 하는 것에 커다란 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총주최로 매 3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金海坤 회장

〈前재일한국과학부회장/
아세아기술협회회 전무이사〉

의의 참가를 통하여 세계의 우리 동포들과의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다.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동학술대회에도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성원

1천2백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과학은 회원의 대다수가 2세 동포과학기술자로서 정부기관이나 대학교,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재외과학의 구성원은 크게 두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재일동포과학기술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재일(在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공농계대학원생 약1천5백명), 연구원, 객원교수 및

기업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회원들이다. 근래에 와서 유학생의 일부는 이 고장에서 그대로 취직하여 정착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협회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은 물론 상호교류의 기회제공, 장학금 알선, 연구발표지원, 취직상담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배경과 특징

재외과학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특성과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재일동포과학자들의 모국에 대한 기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일한국인의 특수성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재일한국인은 1876년에 한·일 수호조약(강화사건)에서 시작된 한·일관계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잔류한 한국인을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재일한국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한일합방 당시 약 4천명정도의 우리동포가 일본에 거주하였으나 1937년 중일사변(中日事變) 전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45년 광복이 되던 해에는 약 2백30만명

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방직후부터 모국에 귀환이 시작되었으나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평화조약)의 체결에 따라 한국인은 정식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으나 해방후 약 7년간 일본정부는 한국인은 외국인이면서 외국인이 아닌 소위 제3국인이라는 애매한 대응을 해왔다.(1947년부터 외국인 등록제도 시작)

그래서 1952년 이후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출입국관리령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다고 믿은 재일한국인은 일본 국내에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반 일본국민처럼 취급되지도 못하는 한편 전쟁전부터의 이유없는 차별로 모든 불평등한 핸디캡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195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의한 협정영주권(지금은 특별영주)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지금도 개선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현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방조국의 분단에 의한 재일한국인 사회는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져 양파의 지도자들은 각자 남과 북의 모국 정계에의 진출을 꿈꾸게 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민생문제등의 운동에 소홀하게 되었다.

재일 제단체의 결성과 변천

1945년 8월15일 이후 재일조선인자치체는 한동안 그 수가 3백여개를 넘었다고 한다.

1945년 9월10일 동경에서 김○○를 중심 민단이나 조총련이나 발족후 제각기 내부분쟁을 계속하였으며 그간의 자세한 기록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양 단체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의

단체역원 특히 「장(長)」이 된 지도자가 모국의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 재일단체를 기반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다.

재일동포의 생활실태

일본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재일동포는 거의 중심권에서 벗어난 위치에 놓여있었던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도 1970년대 후반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허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거의가 유흥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어서 음식업, 유흥업이 주된 업종이었고 토목업, 하청업 등에도 종사하였다.

그후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을 받게 되어서 중소기업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각종 연금은 불입만 하고 법규비로 소용없이 되었고 이러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각종 분야에 종사하면서 자녀교육에는 열중하였다.

그 결과 2세이하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 교육관계

재일동포의 교육문제와 모국과의 협력관계, 여기서는 특히 경제적 측면과 과학기술의 협력관계를 실례로 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먼저 교육문제에 관해서 보면 해방직후에 재일자녀 교육문제를 크게 생각하여 일본전역의 조총련산하에는 동경, 大阪, 神戸, 山口와 재일동포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는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왔다. 조총련계의 활동이 전성기였던 1969년에는 약1만7천6백명 정도였으나 그후 서서히 감소되었다.

1978년에는 국민학교 1만2천5백여명, 중학교 6천여명, 대학교 1천2백여명으로 점점 감소되었다.

1978년에는 국민학교 1만2천5백여명, 중학교 6천여명, 대학교 1천2백여명으로 점점 감소되었다.

다음은 한국계로 동경, 오사카, 교토에 있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합하여 1960년에는 1천8백여명, 1970년에는 2천2백여명 1978년에는 1천4백여명 정도로 감소되어 동경에는 모국에서 건너와서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교육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 하겠다.

2. 기업의 설립과 경제관계

다음으로는 해방후 재일동포가 모국과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관계해 온 과정에 있어서 경제관계와 기술관계를 알아 본다.

먼저 이 두가지 문제는 직·간접의 관계가 있고 그 어느 쪽도 모국(한국)과 일본 두 나라간의 가교역할을 재일동포가 하고 있다.

모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에서부터 생산업, 호텔업을 포함해서 서비스업 등이 있다. 섬유부터 시작하여 금속가공, 전기기기, 전자오디오, 기계, 가공식품 등의 업종은 분명 모국의 경제발전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반면에 모처럼 모국에 꿈을 가지고 생산업종의 기업을 일으켰으나 일본에서는 각종 제약 때문에 일으킬 수 없었던 생산업에 대해 정열은 있어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고생한 보람이 없이 돌아온 예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이 친족을 통하여 또는 기업을 위해서라지만 모국에 경제면에 공헌해온 것도 실로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재미동포도 1백만명을 넘지만, 모국에 대한 경제면에서의 공헌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일동포의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계속>